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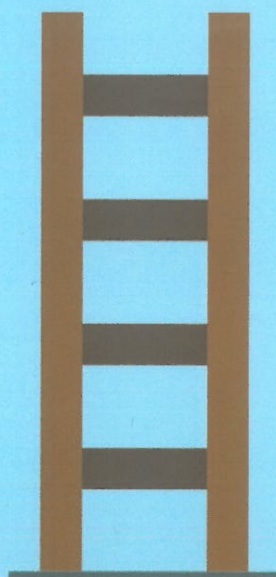
## 목록

2017_1	1
2017_2	2
2017_3	3
2017_4	4
2017_5	5
2017_6	6
2017_7	7
2017_8	8
2017_9	9
2017_10	10
2017_11	11
2017_12	12
2017_13	13
2017_14	14
2017_15	15
2017_16	16
2017_17	17
2017_18	18

2017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학과 소식지

# 그림비

; 그림비는 순 우리말로  
'청년',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학과  
LIBRARY INFORMATION SCIENCE



‘내림비치’는 순 우리말로  
‘목차’를 뜻합니다.

# 내림비치

**1 여는 글** (박성재 교수님) - 3p

**2 너에게 쓰는 편지** (롤링페이퍼) - 4p

**3 문정소식**

2016년 지정(문정)인의 밤 - 6p

대학생활의 첫 시작! 새내기 배움터 - 7p

먹고! 웃고! 달리자, 문정 MT 일지 - 8p

2017 인대체전 - 10p

교수님 감사합니다! - 12p

도활부, 광주로 봉사가요! - 13p

한성인들의 청춘은 바로 ‘대동제’에서 시작된다! - 16p



## 고백하기

요즘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다. 고백(Go Back)부부. 육아와 회사일로 힘든 결혼생활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가 대학시절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육아가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공감은 가지지만 실상은 그들이 돌아간 옛 시절, 그 시대를 향수하게 한다는 점이 나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1999년 대학가, 나도 거기에 있었고 지금, 그러한 열망과 그리움을 가지고 여기에 있다.

내가 그들처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몇 학년으로 돌아갈까? 1학년 신입생. 대학 입학이라는 성공에 취해 자기소개를 목청껏 외치며,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아쉬워하던 그 시절로. 새벽녘 시계를 보면서 성취감에 젖어 집에 돌아오고 내일이면 쓰린 속을 붙잡고 후회하는 삶. 거기에는 대학생이 된 기쁨도 있지만 새로운 경쟁 속에서 좌절감을 더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대학에 가면 끝날 것이라 기대했던, 적어도 그렇게 바랐던 순간은 잠시였고 다시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꾸는 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기우린 술잔만큼 내 1학년 생활도 지나갔다.

나의 기억 속의 2학년 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빨리 지나갔다. 달라진 건 나에게 후배가 생겼다는 점. 먼 미래의 꿈과 희망은 신입생의 사치였을 뿐 지금은 내 앞가림하기도 벅잡던 시절이었다.

군대를 마치고 돌아온 대학은 예전의 대학이 아니었다. 1,2학년 때의 여유보다는 졸업과 졸업 이후의 인생에 대한 고민의 시간들이었다. 군대를 갔다 왔다고 교수님들이 학점을 잘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후배들도 더 이상 복학생 선배를 배려하여 학점을 밀어주지는 않았다. 상대평가의 냉혹한 현실만이 복학생을 맞이하고 있었고 학점이 취업을 보장해 주는 듯 학점 올리기 몰두했다.

그렇게 맞이한 4학년.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1년.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하고 그래야만 했던 시기. 토익시험과 면접 준비로 바쁜 나날들이었지만 하나둘 친구들의 합격소식에 점점 작아지는 자존감. 대학원 진학을 위안으로 삼았지만 다른 이에게 뒤쳐져 있다는 생각은 떨쳐 보낼 수 없었다.

돌이켜 보면 쉬이 지나간 시간은 없는 듯하다. 어느 순간의 환희는 좌절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었던 시절이 대학이었다. 과거를 회상하며 회귀를 생각하는 것은 단지 찬란했던 순간만을 기억하며 그리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좌절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며 보냈던 시간들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촉매제가 되는 것이리라. 또한 늘 그렇듯이 그 또한 지나가고 오늘의 나를 남겨두었다.

누군가가 걸었을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대들이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걷다보면 2017년을 추억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순간이 힘이 되는 미래를 위하여!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성재

안녕 도란도란. - 19p

2017년 제34대 학생회 집부이야기 - 21p

문헌정보학과 35대 학생회 '다음' 인터뷰 - 22p

## 4 문정인 소식

따듯한 봄날, '서울미술관'에서 - 23p

## 5 취업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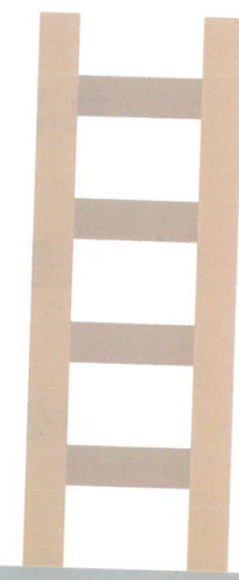
취업. 고민하고 있나요? - 24p

## 6 특집기사

재미로 알아보는 2017 신조어 - 25p

문정인 설문조사 - 27p

## 7 발행후기 - 28p





# 너에게 전하는 편지

## -FROM. 4학년-

To.이현주(16)

현주야 누구한테 롤링페이퍼를 쓸까 고민하다 너로 정했어! 이거 제목은 '땡스 투 현주'야. 2016년 첫 연합엠티 때, 너랑 같은 조가 된 것이 내겐 진짜 행운이었다? 현주 너가 나를 어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대해줘서 나도 너랑 후배들에게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취업경진대회 때도 그렇고 술자리도 그렇고 너가 날 마구(?) 소환한 덕분에 여럿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된 것 같아 고마워. 우리가 집이 가까운 덕분에 알바 하는 곳 찾아간 것도, 동네에서 만나 술 마신 것도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 또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잘 들어주고 잘 받아줘서 고맙다. 나 다크써클 없어지라고 반강제로(?) 사준 화장품 진짜 매일 바르고 있어. 근데 이놈들이 사기를 친 것 같아. 그래도 고마워. 졸업 하고나면 이런 추억들이 더 그리워질 것 같아. 너가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내자. 땡큐!

From.배정현(14)

To.배정현(14)

정현선배~! 입학하고부터 지금까지 항상 좋게 생각해주시고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막학기 이신데 졸업 축하드리고 하시는 일 모두 응원 할게요~~! 화이팅~! 그리고 입학했을 때의 문화부를 잊지 겠습니다! :D 갓정현~!

From.정경은(15)

## -FROM. 3학년-

To.나운주(15)

스웁넵치는 헤어와 위대한 방랑자 정신을 가진 우리 운주! 질긴 도서관근로의 끈으로 뽐뽐뽐여서 여기까지 왔구나~! 동아리실에서 부처님 비호 아래에서 칼국수 열심히 먹던 시절 그럽다잉... 같이 5층 폐기책 옮기면서 이두박근 키우고 내보존서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비상벨 누르고 네가 카공족가이책 웃기다고 홍보하고 다니고 하던 일이 지금 생각해 현웃터진달ㅋㅋㅋㅋㅋ 진짜 그 책밖에 없는 도서관에서 뭐 그렇게 재밌다고 허파에 총맞은 애들마냥 웃고 다녔는첫인상도 그렇고 지금 느끼기에도 성격 착하고 예의바르고 모르겠달ㅋㅋㅋㅋㅋㅌㅋ이게 다 우리 쿨식기욤 파랑요정 운주는 애 같아. 아 그리고 그거 기억나? 애들이 개강파티 할 때 덕분에. 매일 학원의 굴레에서 고통받으며 살고있지외모순위 매기라고 후배들한테 그랬던거? 우리가 2위 언젠가 팬사인회 신청족족 당첨되고 남미여행 완주하는 들날 물어보니까 너가 나 뽑았잖아 그때 왜 1위 아니고 2위냐고 올때까지..... 우리 열심히 샅시다. 화이팅!!!우아앙 싸랑해!!!!

From.양지원(14)

To.김호연(16)

매번 도서관 들어갈 때마다 막 반겨주는 호연이! 데스크에서 예뻐 뽐뽐하는 호연이! 같이 있으면 나까지 밝음 밝음되는 거 같아서 기분 좋아! 학교 들어와서 호연이 같은 후배 알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아!

From.최해은(15)

To.김서진(16)

이쁜 서진아! 노랑 원피스 입었을때 막 이쁘다고 여신이라고 찬양하는 ㅎㅎ이때문에 알게됐는데ㅎㅎ 서로 어색해서 방학내내 별말 없이 지냈다가ㅋㅋ 일같이 하면서 말도 많이 하고 친해져서 너무 좋아♡ 밥 못먹는다니까 김밥도 사다주고, 피곤하다고 비타민도 챙겨주고 신경 많이 써줘서 항상 고마워. 나 휴학해도 락해~~

From.나운주(15)

To.조항규(17)

너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활부라는 이름 아래에 그래도 조금은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행이야. 덕분에 너랑 내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선거도 갈 수 있고 말이야. 이 롤링페이퍼를 쓸 당시는 선거 전인데, 만약 우리가 18년도 학생회를 꾸리게 된다면 많이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더 발전된 학생회, 문정과를 만들어 가면 좋겠어. 내가 준 성공약, 책임감약, 성실함약 잘 먹고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2018년, 멋진 한 해를 보내렴.

From.하동원(15)

To.황진욱(14)

안녕 진욱아!! 내가 새 학기 되고 그래도 너랑 좀 친해진 것 같아. 과대도 해보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첫인상도 그렇고 지금 느끼기에도 성격 착하고 예의바르고 좋은 애 같아. 아 그리고 그거 기억나? 애들이 개강파티 할 때 장난으로 투덜땄었는데 사실 그래도 기분 좋았었어 고마워. 축제 때도 옆에서 열심히 소세지 굽고 잘 노느라 수고했다! 아무튼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누나한테 연락해서 밥도 얻어먹고 그래~

From.임수현(16)

To.임수현(16)

고마워요. 누나의 쿨함과 호탕함 덕분에 완전 친해진거 같아요. 차가울 줄 알았는데 절대절대 형들의 부재를 채워주는 짱짱겔. 많이 사주셨는데 누나도 좀 얻어먹으시죠? 오케이~ 지금 누나 때문에 힙합의 노예가 된 거 알죠?? 이렇게 오래 들을 줄 몰랐는데... 우리 힙합 말고도 다른거 추천 주고받아요. 빠이빠이

From.조항규(17)

## -FROM. 2학년-

To.조항규(17)

항상 이말 저말 하다가 이렇게 쓰려니 민망하구만! 후배 중 아마 너랑 가장 술을 많이 먹었을거야ㅋㅋㅋ 내년에도 술친구 해줄거지?? 내년에 학생회일 잘 이끌어서 18학번 후배들이랑도 재밌게 놀자~ 올 한해 고맙다!

From.이현주(16)

To.양지원(14)

안녕하세요, 선배! 4학년 막학기에 대학원 수업 들으시느라 바쁘시죠ㅠㅠㅠ 근로시간에도 항상 열심히 전공 공부에 자격증 준비까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종종 로비에 들려주시면 제 인생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와주세요☆ (조교님 눈치보면서ㅎㅎ) 남은 막학기 파이팅!^^!

From.김호연(16)

To.김호연(16)

해은선배 작년 튜터링 때부터 진짜 제가 너무 신세를 저서ㅠㅠ 언젠가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여ㅎㅎ 우선 만날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 혼자 친한 척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했었는데 너무 반겨주셔서 감동ㅠㅠㅠㅠ 방학 때 전공 책도 빌려주시고 과제 할 때 음료도 사주시고ㅠㅠ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ㅎㅎ 제가 다음 번에 꼭 밥 한 번 사드릴게여!!

From.최해은(15)

## -FROM. 1학년-

To.하동원(15)

문정과 청년들의 주축, 리더, 우리들의 희망. 하동원 형, 저희 17 들 진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수많은 여자 선배들 못지않게 상현이형, 민석이형 외 다른 형들...그리고 형까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진짜 재밌구요 진심으로 의미있는 활동하도록 이끌어주시고 형과 함께 해서 매우 즐거워요 ♥~♥ 앞으로도 저희 잘 부탁드리고 저희가 군대를 다녀오더라도...사랑하는 지식정보학부 잘 부탁드립니다~

From.황진욱(17)



# 2016년 지정(문정)인의 밤

기사: 16김소희  
편집: 16강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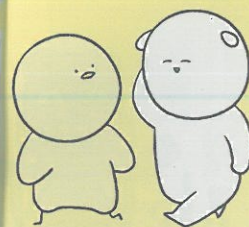
2016년 12월 1일 목요일에는 2016년 11월 1일에 열렸던 학술답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문헌정보학과 학술대회와 그동안에 문헌정보학과에 있었던 일들을 총정리하고 기념을 하는 지정인(문정인)의 밤이 DLC에서 오후 4시부터 열렸다.

먼저 박희진 교수님의 축사로 시작이 되었다. 교수님의 축사로 분위기는 한껏 올려졌다. 다음 33대 학생회장인 오세원 선배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33대 학생회 너나들이에 대한 고마움과 34대 학생회 도란도란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응원을 해주었다. 그 다음에는 33대 총무인 고정현선배가 33대 학생회의 회계보고를 하였다. 그 후에는 선전부가 만든 그동안의 학생회 행사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재밌게 만들어서 문정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영상을 보면서 몇 개월전 추억을 회상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 다음에는 33대 학생회 너나들이가 마지막으로 임기 종료인사를 하였다. 선배님들은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많았고, 또한 후배들이 잘 따라와줘서 고맙웠다고 하였다. 그렇게 33대 학생회는 34대 학생회 도란도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후 34대 학생회 도란도란이 무대 위로 올라와 기획부부터 편집부까지 부장 차장들이 나와서 인사와 앞으로의 포부를 학생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하였다. 선배들부터 동기들까지 도란도란을 마음속 깊이 응원하였다.



마지막을 장식할 문화부의 춤 공연이 있었다. 문화부원들은 지정인(문정인)의 밤을 위해 밤낮없이 땀을 흘리면서 무대를 준비하였다. 문화부 소속인 예비 학생회장인 정경은 선배님도 함께 학우들과 춤을 추었다. 흥이 점점 달아오르면서 학우들을 무대위로 올라오게해서 장기자랑도 하였는데 특히 박영선 학우가 춤을 추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큰 호응을 일으켰다. 그날 한성대학교 DLC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밤이었다.



# 대학생활의 첫 시작! 새내기 배움터

기사: 16박하영  
편집: 16오민석

한성대학교는 2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새내기 배움터를 진행하였다. 4개의 단대와 상상력인재학부로 총 5개의 단대가 함께하였다. 문헌정보학과에 배정된 17학번은 총 32명으로 4개의 조로 편성되었다. 예전의 새내기 배움터와는 다르게 학생회가 주관하는 자리인 만큼 조금 더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다.

도착 후, 어색하지만 2박3일간 함께해야 할 각 조의 조원들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문대는 늦은 점심식사를 한 후 메이플등 그랜드볼룸으로 이동하여 총학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각 과 회장단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17학번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후 모든 단대가 모여 회장단을 소개하고 새나기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루하지만 들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 강의를 듣고 난 후, 취침 조끼리 모여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방 별로 학생회가 간식을 사와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기상 후 모두 힘들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 조 별로 대기를 한 후 다시 인문대끼리 모여 O, X퀴즈 등 여러 게임을 하고 응원전을 연습했다. 인문대는 국문과 마임패의 역동적인 안무에 맞춰 빨간색 끈을 흔들며 응원가(파도 앞에서)를 불렀다. 자유국문, 열정역사, 진보영문, 자주지정 각 과의 구호를 외치며 다들 열심히 불렀는데 특히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학우들이 열심히 외쳤다. 응원가뿐만 아니라 파도타기 등 몸을 사용하는 응원도 준비하여 더욱 역동적이게 보였다. 저녁식사 후 모든 단대가 모여 새내기 배움터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각 단대별로 학생들이 나와 게임을 하고, 학생회가 장기자랑을 하여 점수를 얻었다. 인대의 한 남자학우가 용감하게 혼자 나와 엑소 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이돌을 보는 것과 같아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이후 각 단대별로 응원가를 보이게 되었다. 공대는 회장단이 북을 치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로 응원가를 외쳤는데 큰 공간이 울릴 정도로 크고 멋있었다. 인문대는 연습한 것 보다 다들 더욱 열심히 외쳐주고 마임패가 멋있는 안무를 보여주어 다른 단대를 놀라게 해주었고 다른 단대들도 열심히 준비한 응원가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1등은 공대가 되었고 2등은 인문대가 되었다. 이후 엔오디와 들불 등 한성대학교의 자랑인 동아리 공연이 이어졌다. 모두들 몸을 들썩이며 같이 즐기고 맛있는 춤과 노래를 관람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각 조별로 모여 이동하고 밤새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 동안 힘든 일정을 소화하여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지만 모두들 이번 새내기 배움터를 통해 더욱더 동기들, 선배들과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고 한성대학교에 더욱더 소속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





# 먹고! 웃고! 달리자.

## 문정 MT 일지



기사: 17윤대원  
편집: 16오민석

2017년 4월 29일, 학교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엠티를 떠났다. 다들 중간고사라는 산을 넘으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기에 적절한 시기에 즐거움이 될 것 같다. 장소는 대성리에 위치한 한 숙소이다. 6개의 조가 숙소에 가기 전에 각자 받은 비용으로 장을 보려고 상봉역에서 만나 마트로 출발하였다. 각 조들은 정해진 시간까지 비슷하면서도 다른 장보기를 끝내고 대성리로 가는 기차를 타고 여행의 길로 떠났다.

숙소에 도착 후, 다들 짐을 풀고 가벼운 식사를 하고 운동장으로 모였다. 운동장에 모여 첫 번째로 한 활동은 미션 달리기이다. 미션 달리는 총 3번으로 남자, 여자, 자유 의지 순서로 진행되었다. 미션지가 업고 달리기, 손잡고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 데려오기 등등 독특하고 미션 달리의 조건이 동성이 아닌 이성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미를 더해주었다. 또한 이성을 데려오면 서먹했던 관계도 풀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재미뿐만 아니라 사이까지 가까워지는 활동이 되었다. 우승은 남자는 1조 여자는 4조 자유참여는 6조가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피구를 하게 되었는데 두 개의 조를 한 팀으로 만들어 1,4조 2,5조 3,6조로 게임이 진행되었다. 처음 경기는 1,4조 vs 2,5조였다. 3판2선승제게임으로 2대0으로 1,4조가 이기게 되었다. 부전승으로 올라간 3,6조와 결승전 경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2점을 걸고 한 결과 3,6조가 최종적으로 우승하게 되었다. 피구 경기의 끝으로 운동장에서 하는 교외 활동은 끝났다.



힘든 운동을 끝내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왔다. 저녁은 고기로 모두가 좋아했다. 밥을 먹기 전에 교수님들도 오셔서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선배들의 배려로 17학번 후배들은 밥을 빠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선배들의 따뜻함을 알아가고 교수님들과의 친근함을 도모하는 이야기장이 형성 되어서 즐겁고 맛있는 저녁 식사시간이 되었다.

밥을 먹은 후에는 모두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인 레크레이션 시간을 하였다. 학생회의 소개로 레크레이션의 장을 열게 되었고 문정과의 예산 상황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은 다음 드디어 본격적인 레크레이션 활동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는 문화부 부장님과 문헌정보 회장님의 댄스로 흥을 돋았다. 둘의 호흡이 잘 맞추어진 춤이었다. 이어서 문화부 부장님의 단독 댄스로 분위기가 더욱 고조 되었고 문화부에는 아직 신입생이 없었지만 용기 있는 신입생들 덕분에 무사히 신입생부분 댄스파트도 잘 해결되었다. 그리고 4명의 여학생들이 호흡 맞는 춤을 추면서 무사히 문화부 공연은 끝이 났다.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습했음을 알 수 있었고 대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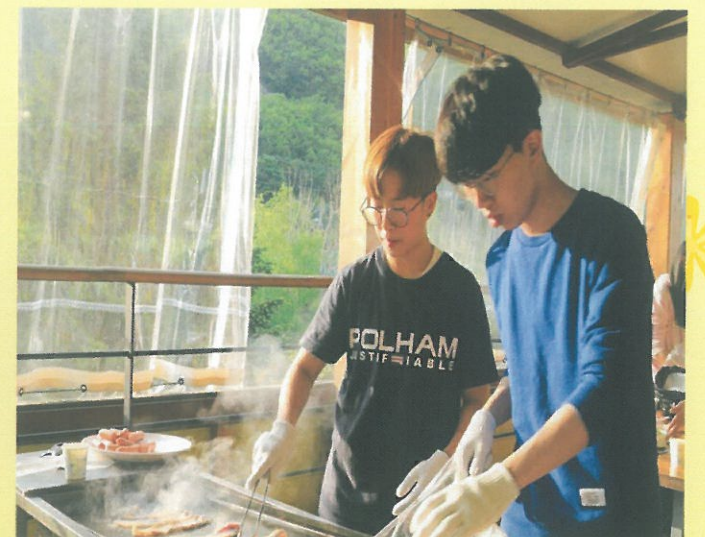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아이스브레이크를 전제로 한 별명빙고를 하였다. 자신의 별명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빙고 칸을 채울 수 있기에 다들 빠르게 움직였다. 5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서 모두들 각자의 빙고 칸을 채웠다. 최종적으로 우승은 승규라는 친구가 되었다. 이번 승부의 초점은 누가 가장 상대방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우승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예측 O/X게임을 하였다. 발사이즈, 손 크기, 몸무게 비교, 폐활량, 목찌빠, 제로 게임 등을 하였는데 서로를 자세히 몰라서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고민 끝에 다들 각자 생각대로 적었다. 결과는 1등은 6조, 2등은 2조, 3등은 3조가 가져가게 되었다. 중간 중간에 미리 적어두었던 메모를 열면서 선배들의 노래나 장기들을 볼 수 있었다.

모두와 함께 활동을 참여하여서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활동이 끝난 후 각자 방에서 게임을 하였다. 선배와 후배라는 어색한 관계를 없애고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1~2년 친하게 지낸 것 같이 즐겁게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어제 밤 피로를 풀고 짐을 싸고 출발 준비를 하였다. 숙소를 나와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엠티가 마무리 되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1박2일 엠티였다.





# 2017 인대체전

기사: 16문준혁  
편집: 16오민석

한성대학교에서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18일, 4일간 인문대 소속의 과들끼리 체육대회(이하 체전)를 진행하였다. 이번 체전은 '농구', '피구', '족구', '풋살', '줄다리기' 이 5가지의 종목으로 진행하였다. 15일에는 농구예선과, 피구예선이 치러졌고 문헌정보학과(이하 문정과)는 농구는 영문학과를 상대로 패배했고 피구 또한 역사학과를 상대로 패배했다.



LOSE



16일에는 농구결승과 피구결승이 진행되었다. 17일에는 족구, 풋살 그리고 줄다리기 예선이 치러졌다. 문정과는 족구에서 영문학과를 상대로 승리했고 풋살 또한 국문과를 9대 1이라는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줄다리기는 영문학과를 상대로 패배했다.

WIN



LOSE



WIN



18일에는 족구결승과 풋살 결승 그리고 줄다리기 결승이 치러졌다. 문정과는 국문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족구 1등을 차지했고 풋살 또한 역사과를 상대로 승리해 풋살 1등을 차지했다. 종합점수를 봤을 때 문정과는 3등을 차지했다. 이번 체전을 통해 선배와 후배가 함께 어울려 서로 땀 흘리며 친목을 도모한 계기가 된 것 같아 순위 상관이 없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교수님 감사합니다!

기사: 16박하영  
편집: 16오민석

5월 15일 문헌정보학과 학우들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수님들을 찾아뵈었다. 수업 때 마다 항상 뵈었지만, 무언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가는 길은 언제나 두근거린다. 실례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인사를 적은 롤링페이퍼와 작은 꽃다발을 준비하여 각 집부별로 시간을 정하였다.

롤링페이퍼는 알록달록 다양한 색으로 준비되어 교수님 한분 한분의 성함과 카네이션 한 송이씩이 있었다. 과실에 두고 일정 기간 동안 글을 받았는데 교수님들과 만난 지 별로 안 된 17학번 학우들은 쓸 내용을 한참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업으로 몇 년 간 만난 학우들은 감사한 마음을 담은 글을 능숙하게 써내려갔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자보 또한 준비해 문헌정보학과가 아닌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했다. 각 교수님의 성함과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 선전부가 그린 큰 카네이션은 스승의 날의 분위기를 한껏 보여주었다.

각 집부별로 교수님과 약속한 시간에 만남을 가졌는데 기획부는 박지영 교수님과 강순애 교수님, 도활부는 박성재 교수님, 문화부는 김양우 교수님, 선전부는 정경희 교수님과 박희진 교수님, 마지막으로 편집부는 이호신 교수님과 서은경 교수님을 찾아뵈었다. 아직 과가 정해지지 않은 17학번 학우들도 함께해서 더욱 특별했는데 특히 이호신 교수님과 서은경 교수님은 정경은 학우가 직접 수업이 있는 교실로 찾아가 수업을 듣는 17학번 친구들과 함께 축하 인사를 드렸다.

다 함께 웃음을 띤 사진들은 이날의 따뜻함을 보여준다.



# 도활부, 광주로 봉사가요!

기사: 16박하영  
편집: 16오민석

도활부를 중심으로 문헌정보전공 학우들은 이번 여름방학 도중 광주로 도서관 봉사를 다녀왔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우들은 인터뷰를 통해 봉사의 즐거움을 알려주었다.

## 1. 도활부의 자체적인 봉사활동으로 어떠한 취지로 계획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나요?

하계 방중 봉사활동은 2017년 도활부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작년 태백 봉사활동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기에, 매년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획하였습니다. 학기 중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하는 봉사와 달리 며칠 동안 숙박을 하며 봉사에 주력하면, 그만큼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실전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선후배 화합의 장이 되어 친밀감을 쌓을 뿐 아니라 여러 조언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봉사에서는 목록 재정비와 도서 분류 및 배가 활동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장서가 약 12,000여권이었던 때문에 장서점검 외의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서점검 외의 활동으로는 간단하게 문헌정보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멘토링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2. 광주 봉사활동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셨나요?

15이경선: 크게 목록, 장서점검, 배가, 라벨링, 전산 작업을 하고 몇몇 친구들에 한해서 멘토링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지혜학교 장공도서관엔 사서 선생님이 없고, 문학 선생님께서 혼자 도서관을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어디서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정도로 도활부의 도움이 필요한 작업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인 작업은 아마 목록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된 목록이 있어야 다음 작업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분실 도서와 미등록 도서가 너무 많아서 장공도서관의 모든 책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수기로 체크했어야 했었기 때문에 도활부 부원들 모두가 모여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책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도활부 봉사활동에 여러 차례 참여해왔지만 이번처럼 많은 양의 장서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을 마쳐야 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도활부 봉사활동에 여러 차례 참여해왔지만 이번처럼 많은 양의 장서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을 마쳐야 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 다른 봉사활동들처럼 보람이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도서관에 사서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찼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도활부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도활부 파이팅^^

15하동원: 총동문회장님께서 요청하신 활동은 먼저, 장서점검이었습니다. 당시 장공도서관은 담당 선생님께서 교사 일을 겸하며 운영해왔던 터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수기로 대출 반납을 하다 보니 분실도서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컴퓨터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셔서 동문회장님의 기기 지원과 기존 도서관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으로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기가 마지막에 말뚝을 부려 대출반납 활동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실도서 파악을 하기 위해 기존 목록을 이용하기로 하고 조금 더 편의를 위해 장서 재 배가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헌정보학에 뜻이 있다는 학생들이 있어 멘토링처럼 학생들과 함께 봉사를 하며 도서관에서의 일이 재미없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 일정과 겹치게 되어 학생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기존 목록은 많은 하자가 있었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목록을 재작성하지는 못하였고 수정을 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배가하는 과정에서 서가의 여건이 좋지 못하여 폐기도서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서의 상태나 출판년도, 학생들 수준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폐기도서를 선정하여 목록에서 폐기도서로 지정하고 별도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장서를 옮겨야 했고, 경우에 따라 수 백 권의 장서를 통으로 다른 서가로 옮겨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분실도서 파악 및 재배가를 위해 기존의 목록을 확인하며 수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였고, 그 후에 분실도서를 파악하고 재배가하는 작업, 폐기도서 선정을 한꺼번에 진행하였습니다.



### 3. 봉사하고 난 후 느낀점은 무엇인가요?

**17김진희:** 저는 이번에 처음 숙박 봉사를 하게 됐는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봉사를 가게 됐어요. 하지만 숙박 봉사를 하고나서보니 저에게 많은 것을 안겨준 봉사였어요. 우선 동기들과 선배님과 함께 봉사하면서 서로 소통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알아가고 배워가며 저의 경험, 능력도 쌓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봉사였어요. 광주 봉사에서 서가정리를 할 게 많아서 힘들었지만 모두들 힘을 합쳐 다 같이 하다 보니 조금씩 정리되고 선배님들 덕분에 무사히 마치고 와서 매우 뿌듯했어요. 다음번에도 봉사를 하게 되면 이제는 기대 반 걱정 반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가려고요! 봉사하면서 우정도 끈끈해지고 비슷한 진로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하다 보니 의견 주고받기도 수월해서 편하고 좋았어요. 많은 것을 제 자신이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봉사였어요!

**17최승규:** 여름방학에 다녀온 광주 숙박 봉사는 대학 와서 처음 한 숙박 봉사였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 관심은 있었지만 사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도서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자세하게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도서관 데스크에 앉아 한가하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봉사를 하면서 도서관의 전체 관리를 맡는 사서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서가 재배치가 저의 주된 업무였는데 거의 도서관 전체를 얻는 작업이라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이끌어 주셔서 진행이 쉬워졌습니다. 힘들었지만 대학 선배, 동기들과 같이하는 첫 봉사였기에 보람있고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17황진욱:** 모두 한여름에 광주까지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사서선생님이 없는 도서관이어서 서가와 도서의 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선배들과 동기들 모두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청구기호순대로 차곡차곡 책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배치한 수많은 책들이 제대로 정리조차 되어있지 않아서 필요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은 사서의 중요함이었습니다. 서가배치 뿐만 아니라 선배들이 주도하여 청구기호가 잘못 부착되어있던 책들도 찾아 하나하나 모두 고칠 수 있었습니다. 1학년들이 보다 자세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배들처럼 도서관에 필요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서를 꿈꾸는 저에겐 도서관에 사서라는 직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보람찬 것 같다는 기대감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활부를 통해 제가 진지하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에 감사한다는 점입니다. 학교에 있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멀리서 온 우리들에게 도서관 관리를 맡기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힘만으로 열악했던 도서관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봉사를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방문한 인원 모두 적극적으로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방문해서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싶어졌습니다. 도활부를 통해 도서관 활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뜻이 같은 부원들과 즐겁게 방학 중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던 것 같습니다.

### 4. 봉사기간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15정경은:** 도활부에서 주최한 숙박봉사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추가봉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추가봉사는 기존 일정보다 2주가량 뒤에 진행되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도서 정리가 많이 되어있어서 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해야 할 일을 정리하다보니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라벨링 작업'이었습니다. 도서관 봉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이지만, 작년 숙박 봉사에서 라벨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아쉽게도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목록작업과 동시에 라벨링 작업도 하여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도활부 봉사 외에 다른 기관에서 봉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라벨링 작업도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숙박봉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친목활동, 앞 팀이 시간이 부족하여 못했던 일들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하려고 팀원들끼리 더 협력했던 모습도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아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16이은지:** 봉사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봉사 마지막 날 저녁에 같이 봉사했던 동기들과 후배, 선배님들과 같이 뒤편이처럼 파티 했던 것이었는데요. 도서관 담당 선생님께서 읍내에 나가셔서 수박과 치킨을 사오셨는데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친해지고 봉사하는 동안 느껴졌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ㅎㅎ 그리고 새벽에 산책 나갔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ㅎㅎ 봉사하는 동안 여름이라 그런지 파리가 엄청 날아다녔었는데 파리가 내는 소리 때문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는데 같이 일찍 일어난 친구랑 후배들이랑 도서관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꽃도 보고 농작물도 보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7조항규:**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일은 우리가 처음 딱 도착해서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 밥을 먹기 위해 우리는 책상을 직접 내려 피고 그 자리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먹은 뒤에는 식판과 식기들을 싱크대에 가서 스스로가 설거지를 하고 정리해야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어린 친구들부터 고3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척척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 하나는 바로 선배들 동기들과 800대 도서들을 목록작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혜학교의 도서관은 사서선생님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곳이 아니어서 책들이 이곳저곳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인 우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진전이 있지도 않았고 무거운 책들을 옮기고 다시 정리하고 목록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소설들이 있는 번호대여서 책들의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단순하게도 너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각자 할 일을 맡고 충실하면서 농사를 할 때 농가를 부르듯이 노래도 틀고 수도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선배, 동기들과 더 친해졌고 아직까지 그 때 이야기를 하면서 웃곤 합니다.

### 5. 봉사 후 아쉬운 점과 다음에도 봉사를 할 계획이 있나요?

**16나연희:** 봉사에서 아쉬운 점을 뽑으라면, 계획한 일정 내에 봉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처음 광주 하계 봉사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동안 16명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선발대는 목록과 실제 장서를 비교하여 분실도서를 파악하고 도서 분류 및 배가활동을 하고, 후발대는 분실도서를 목록에서 제거하고 라벨링을 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실도서가 약 3,000권 가량 있었고 분실도서 뿐 아니라 미등록 도서와 등록오류가 있는 도서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또한 도서관 측과 협의된 내용이 달라 봉사 이전에 처리가 되었어야 할 미납납도서와 구분되지 않은 폐기도서 등 애로사항까지 있었습니다. 목록작업에서 지체된 것이 가장 컸지만, 서가가 일정하지 않아 배치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습니다. 결국 선발대에서 마무리하러던 활동들이 후발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계획한 시간 이상으로 봉사하는 등 최선을 다 하였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후발대까지 봉사활동을 다녀 온 후, 이대로 봉사를 마무리 짓기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함께 수고한 도활부 부원들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희는 추가방문을 기획하였습니다. 결국 2박 3일 간 추가방문을 하여 봉사를 마무리 하였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 도활부에도 방중 하계 봉사를 적극 추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봉사 기획 단계를 더욱 꼼꼼히 하고 즐거운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2016년도에 진행했던 태백 봉사활동을 한 번 더 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16이현주:** 가장 크게 아쉬운 것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학교 및 학생 측 둘 다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서 선생님의 부재와 그에 따른 담당 선생님의 일이 가중되어 도서관이 운영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서의 부재는 저희가 봉사를 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도서관을 완성시켜도 실질적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도서관과 이용자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보완해 더 색다른 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도활부의 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은 말씀만 해준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봉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면 매우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혼자서 봉사하기 두려우신 분! 처음 도서관 봉사하시는 분! 같은 꿈을 꾸는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신 분 적극추천 입니다!



# 한성인들의 청춘은 바로 '대동제' 에서 시작된다!

기사: 16김소희  
편집: 16오민석

2017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 한성대학교의 축제인 대동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작년 축제와 다르게 외부 유명 인사를 많이 섭외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20일에는 나무 액터스 김동식 대표, 이주한 KBS 아나운서와 그리고 무한도전을 연출하고 있는 김태호 PD가 방문했고, 22일에는 tvN 드라마 시그널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등 많은 유명 인사들이 우리 한성대학교에 찾아왔다.



나무액터스 김동식 대표



무한도전 김태호 PD



KBS 이주한 아나운서



tvN 드라마 시그널 김은희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던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가수들의 무대공연이 진행되었는데, 20일에는 더 라즈와 크러쉬가 왔고 21일에는 디에이드 (어쿠스틱 콜라보)와 어반자카파가 왔고 마지막 축제날인 22일에는 이하이와 리듬과워가 와서 축제를 한층 더 재밌게 만들었다.

축제에는 이러한 연예인들의 무대공연 뿐 만 아니라 볼거리와 먹거리와 다양한 이벤트등이 진행되었다. 댄스동아리 NOD에서 멋진 춤 공연을 해주었고, 힙합동아리 트라이엑스와 밴드동아리 들불과 왕산악이 뜨거운 공연을 하였다. 또한 한성대학교 총학생회인 OPEN BOOK에서는 SNS인증을 통해서 포토 존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경품 추첨권을 증정하였고, 7번 출구 술집과 함께 생맥주 증정 이벤트도 하였다.

더 라즈(The Lads)

이하이

리듬과워

디에이드

크러쉬(Crush)

어반자카파

작년과 다르게 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준비한 푸드 트럭도 있었다. 하랑 등 동아리에서도 핫도그나 칵테일, 피자 등을 팔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점인데 주점은 21일과 22일 2일 동안 진행되었다.

우리 과 주점인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도란도란의 주점은 우진사 (우촌관과 진리관 사이)에서 주점을 하였다. 문정과 주점의 컨셉은 최근 쇼미더머니에서 유명한 우원재를 모티브로 해서 학생회들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정색 비니와 검정색옷을 입고 주점을 하였고 주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호응도 높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고 안전사고 없이 2017년 한성대학교 대동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 안녕 도란도란.

(34대 회장단 마무리 인터뷰)



기사: 16박하영  
편집: 16오민석

## 1. 일 년 동안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 (보람을 느꼈을 때, 아쉬웠을 때)

**15정경은:** 안녕하세요. 제 34대 정학생회장 15학번 정경은입니다.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진행하였던 모든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새내기 배움터, 개강파티, 연합애프터, 대동제 등등 큰 행사뿐만 아니라 학우님들의 복지 및 작은 이벤트까지 각각의 보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정도로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행사가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올 한해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특별하고 잊지 못할 순간들입니다. 다만,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을 때 참여인원이 부족하여 생각했던 것보다 소규모 행사가 진행될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16노서영:** 안녕하세요. 제 34대 부학생회장 16학번 노서영입니다. 제34대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올해 진행된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그 어느 때 보다는 과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시키는 매 순간마다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동기들과 응원해주는 선후배님들 덕분에 많은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치기도 했지만 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2. 17학번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과 하고 싶은 말

**15정경은:** 작년 1월 중순쯤에 학생회장으로서 첫 행사를 진행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애틋 얼굴로 수줍게 학교, 과목, 분위기 등을 물어봤을 때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힘들었던 것이 사르르 녹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랬던 17학번 친구들이 지금은 누구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잘 지내는 것 같아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내년이면 후배가 생길 텐데, 선배나 동기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후배들을 잘 부탁드리고 먼저 다가와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16노서영:** 제가 올해로 2학년이 되면서 생긴 첫 후배들이자, 부학생회장으로서 맞이하는 새내기들이었던 17학번 친구들이 학교에 처음 들어오고 적응해 가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곤 합니다. 언제까지나 새내기일 것 같던 17학번 친구들이 이제 곧 후배가 생긴다는 사실도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다들 착하고 배려가 깊은 만큼 좋은 선배가 되어 18학번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17학번 파이팅!

## 3. 우리 과 모든 학우님들께 하고 싶은 말

**15정경은:** 올해부터 학과가 아닌 트랙제로 변경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존재했고, 그에 따라 저 스스로도 학생회장으로서 아쉬움이 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 학우님들은 더 큰 실망감과 아쉬움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매사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믿고 맡겨주신 문헌정보학과의 학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 제 34대 학생회 집부 이야기

기사: 16박하영  
편집: 16강석진

## <기획부>

### 부장 16윤소혜

기획부 부장이 되고 그림비에 후기를 쓴 시간이 바로 얼마 전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다니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1년 동안 도와준 기획부 친구들 정말 고맙고 남은 시간도 잘 부탁해요. 내년 학생회도 항상 응원합니다!

### 차장 16이은지

작년 겨울 문정인의 밤 당시에 단상에 올라가 기획부 차장을 맡게 된 소감을 이야기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1년 동안 개강파티나 간식사업 등 여러 가지를 기획부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17후배들인 지원이, 유정이, 하영이 다들 너무 고맙고 부족한 차장 잘 이끌어준 부장 소혜한테도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34대 학생회 도란도란 동기친구들과 경은선배께도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어요! 다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도활부>

### 부장 16나연희

도활부 부장을 처음 맡아서 인수인계 받았을 때가 었그제 같은데 벌써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 줄 때가 되었네요. 도활부 인원이 35명이나 돼서 깜짝 놀랐던 것, 소모임 활동에 교수님 연구지원 등 고생해서 100만 원 이상 활동비를 만든 것, 힘들었지만 얻은 것도 많았던 광주봉사활동, 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ㅎㅎ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멍충이였는데 지금은 능력치 9999 상승해서 도잘알(도활부잘아는사람)이 되었답니다. 저한테는 도활부 부장했던 것이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만 남을 것 같아요! 여러 선배들, 교수님 도움도 받고 좋은 후배들도 만나고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년도 도활부 부, 차장들이 기운 받아가서 더 성장하는 도활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란도란 화팅 내년 학생회도 화티잉~~!

### 차장 16이현주

우리 도활부는 서로 배려심과 겸손함이 넘쳐서 너도 나도 부장, 차장을 서로에게 양보하였습니다. 저랑 연희가 그 자리를 맡은 지 벌써 1년이 되어 후배들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게 되다니 너무나 기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도활부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싶어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든직한 부장 연희랑 같이 서로 도우며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마다 성취감과 그 일을 하면서 생긴 추억과 경험들은 제 대학생활에서 없으면 서운한 경험들이 뻬었습니다. 또한 학생회에서 학과 운영을 하면서 어여쁜 학생임원들과 회장단들의 캐미는 신나고 즐겁게 1년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고맙고 남은 대학생활에서도 같이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많이 좋아합니다. 다들 알지? ㅎㅎ 도활부를 하면서 만난 귀여운 후배님들도 활동을 하는데 더 정성을 쏟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활동할 때 고생은 조금 해도 곁에 사람들과 재미있게 활동하여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대 학생회 화이팅! 도활부 파이팅!!

## <문화부>

### 부장 16유가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알았더라면 좀만 덜 자고 덜 먹는 건데, 혹 저랑 광준이 조합이면 문화부 인기 폭발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제가 넘 이빠서 다들 못 들어왔나 문화부의 존속 위기가 닥쳐버렸네요ㅠ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2년간 나름 애정 듬뿍이었던 문화부가 다시 부활하기만을 기대하며, 일 년 간 정말 경은 서영(상현) 이 최고 고생 많았던 것 같고, 이젠 도란도란 다 같이 과담 길만 걸자!

### 차장 16전광준

만나서 반가웠고 일할 때 다들 고생했어! 휴학해서 거의 보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만나도 반가워해줘! 아무튼 남은 날 동안 힘내자.

## <선전부>

### 부장 16김차현

안녕하세요. 제 34대 학생회 도란도란 선전부 부장 김차현입니다~! 벌써 부장 후기를 쓰다니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사실 학생회 활동 하면서 크게 힘든 일 없이 잘 지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년도 잘 이끈 회장단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회장단 분들이 잘 해주셔서 각 부 학생회 부원들도 학생회 활동 하는 것이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학생회가 꾸러질지 기대되고 더 번창하는 문정과가 되길 희망합니다.

### 차장 16황선민

안녕하세요. 제 34대 학생회 도란도란의 선전부 차장 16 황선민입니다! 그동안 무슨 그림을 그릴까 어떤 문구를 넣을까 고민하면서 자보틀 붙여왔는데 함께 해준 선전부 부원들 수고 많았고, 옆에서 도와준 동기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의견 많이 내주세요! ㅎㅎ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예쁘게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고 좋은 선배, 동기, 후배분들 덕분에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고 도란도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17 선전부 화이팅!

## <편집부>

### 부장 16박하영

이번 해 도란도란에서 새터부터 축제까지 정말 행복했어요~ 경은언니 서영언니 진짜진짜 고생하셨고 상현오빠 군대가고 축제때 같이 고생 안 해서 아쉬워요. 그리고 일 년 동안 같이 문정과 이끌어간 집부별 친구들~스릉합니다! 우리 노잼학과로 유명하지만 우리끼리 있을 땐 진짜 웃기고 흥부자 되잖아옹~ 트랙제로 바뀌고 후배들 입시 때부터 학교로 불러가서 홍보하고 우리과로 오게 하려고 정말 회식해도 술 안마시는 우리가 새터에서 마지막 살아남는 방이 되는 기적을 맛봤어요. 마지막 행사인 지정인의 밤까지 화이팅해요 도란도란 하트해요~

16노서영: 회장단으로 출마하기 전부터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회장단 일을 하는 것이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격려해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신 모든 문헌정보학과 학우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들이 해주신 여러 말씀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믿고 뽑아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다음 회장단에게 해주고 싶은 말

15정경은: 올해보다 더 트랙제도에 대해 골머리를 썩을 것 같아 그 누구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부족한 실력으로 첫 트랙제도를 이끌었던 저보다 2018년도 회장단이 더욱 잘 이끌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전 학생회장으로서 내년 회장단에게 가끔은 매를 들기도, 칭찬을 선물하기도 하면서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2018년도 학생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16노서영: 학교의 제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그때마다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내년도 올해만큼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다보면 느끼게 되는 보람과 성취감은 아마 힘든 생각들을 뛰어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내년 임기 중 답이 보이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같이 머리를 맞대어 도와줄 것을 약속합니다. 35대 학생회를 응원합니다!





# 문헌정보학과 35대 학생회 '다음' 인터뷰

기사: 16박하영  
편집: 16오민석

## 1. 자기소개 및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

**15하동원:** 저는 제 35대 학생회 '다음'의 정학생회장 하동원입니다. 2016년, 도활부의 차장을 맡게 되었을 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시간이 흘러 2018년, 이제는 한 집부의 활동이 한 학과의 활동이 되었지만 역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학우 분들에게 잊지 못할 한 해를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15박효정:** 안녕하세요. 제 35대 학생회 부학생회장 후보, 지식정보학부 15학번 박효정입니다. 꽤 오랜 기간 '사서'라는 꿈을 키워왔고 학과에 애정이 많았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학과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더 하고 싶고, 제가 직접 다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해보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17조항규:** 안녕하세요. 정보문화, 디지털 인문정보 트랙 선택을 한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소속 17학번 조항규입니다. 입학은 학부생으로 했지만 문헌정보에 관심이 있었고 도활부 집부 소속으로 봉사과 학생회 활동을 하며 과에 봉사하고 일을 배워보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17학번이고 트랙제를 경험한 학부생인 만큼 신입생들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은 바에 충실하며 문헌정보학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제 35대 학생회 이름과 뜻

제 35대 학생회는 '다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온다.'의 줄임말이며 아름다운 순우리말입니다. 여기에 저희는 선후배, 동기간의 교류의 장을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자 가장 큰 목표이기에 '모든 좋은 일'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을 듣는 모든 학우 분들이 여러 활동에 다 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3. 주요 공약과 실천 방안

저희 공약은 총 3가지로 가장 먼저, 선배와 후배가 함께 하는 트랙 소모임과 같이,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늘려 선후배 간의 교류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과 홈페이지에 학과 내·외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한성지정을 통해 학과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더욱 쉽게 활성화된 학과 홈페이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선후배, 동기간 교류의 장인 과실을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뜻한 봄날, '서울미술관'에서



기사: 17이서영  
편집: 16오민석

2017년 4월 14일 미술관 관람을 신청한 우리들은 서울 미술관 앞에서 만났다. 그 당시 미술관에서 전시한 작품들의 주제는 "카페 소사이어티", "사임당 그녀의 정원", "석과정" 이렇게 3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관람자의 편의를 고려해 배치해둔 캐비닛에 작은 짐들을 두고 관람을 하러 입장했다. 첫 번째 테마는 "카페 소사이어티". 여러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시해 놓았다. 또, 주변에 있는 카페들을 소개하는 공간도 존재하고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두었다.



'카페 소사이어티'를 뒤로한 채 2층으로 올라가면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사임당 그녀의 정원'이 전시되어 있다. 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한국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며 걸었다. 다양한 질감, 독특한 색 조합을 무기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려낸 예술가들이 실로 대단해 보였다. 안타깝게도 신사임당의 작품을 모아둔 공간인 '사임당 그녀의 정원'은 사진촬영이 불가능했다. 신사임당이 그린 조종도와 그 이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가 야외공간이자 정원인 '석과정'으로 나간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점점 비가 강하게 내리자 우리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둘러보아야 했다. 비가 내려 하늘은 어두웠지만 소나무들과 기와집들이 있는 '석과정'은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다.





# 취업. 고민하고 있나요?

(팔고당 박준현 선배님 인터뷰)

기사: 16박하영  
편집: 16오민석

긴 수험 생활을 거치고 우리는 각자 원하는, 또는 성적에 맞춰 대학과 학과에 소속하게 된다. 전공을 공부하며 자신과 맞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길이 정말 자신의 길인지, 졸업을 하고 어디로 취직을 할 것인지에 고민한다. 이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문헌정보학과 박준현 선배를 지난 10일 정경은, 노서영 학우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1. 문헌정보학과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저는 재수를 해서 먼저 대학 간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같이 한성대에 원서를 쓰러 갔는데 친구들이 도서관학과를 써줬어요. 제가 책 읽는걸 좋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학과에 여자가 많아서 소개 받으려고 그런 거였죠. 그때는 도서관학과로 분류법이랑 정보학, 도서관 경영론을 했었는데 원래 꿈은 광고 계획이어서 배울게 없더라고요. 전공 공부는 안하고 체육만 겨우 A를 받아서 학점을 받았었죠. 공부 대신 학과에서 재밌는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체육 대회에서 상도 많이 탔어요. 과사무실에 트로피 많을 거예요! 그러다 추천으로 3학년 때 학생회장이 돼서 그 때 축제를 기획하고, 삼선교 공원으로 가는 길(탐구관에서 내려가는 길)의 막혀있는 곳을 부수는 퍼포먼스도 했어요. 그런 기획을 잘 하니까 졸업하고도 교수님이 계속 부르셔서 남들보다 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 2. 졸업 후에 전공과 관련 없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경로가 궁금해요.

전공은 맞지 않았고 이벤트 회사에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다 대기업에 가니까 저도 그냥 따로 열심히 공부해 은행에 취직했어요. 일이 너무 재미없어서 일부터 더 친절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친절 직원도 되고 기획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니까 좋은 기회를 얻어 본사로 들어가 홍보부에서 10년 간 일을 했어요. 잠깐 방송 작가를 했었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 기획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의 전략방향과 진로를 만들어 주는 브랜딩을 시작 했는데 그 분야에서는 유명해져서 계속 찾아주시는 분도 있고 재미있으니까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많은 분야에서 일한 것이 밑바탕이 돼서 지금의 '팔고당'을 만들 수 있고 더 확장시킬 수 있었죠.

## 3.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긴 했지만 남들 따라 대기업, 공무원 길을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적성에 맞는 기획 일을 해서 오래 다녔지만 연수원에 있을 때는 뛰쳐나오고 싶었거든요. 또 전공이라고 해서 꼭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밑바탕이 돼서 다른 일을 시작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간다고 하는데 일단 출발해야 길을 찾고 기회를 만나요. 기회라는 건 저기 기회가 있으니 가야겠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생기는 것이 기회예요. 가는 길에는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햇살도 비추는데 저 끝까지 가려면 그걸 피할 수가 있나요? 비를 피하다가 좋은 나무를 만나 나만의 쉼 장소를 찾기도 하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 좋은 파트너가 되기도 하죠. 또 진로는 우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는 그걸 참 잘해'라고 하는 그것이 경쟁력이니까 그걸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 대한 평판과 내가 잘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가 아닌 나와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가거나 없다면 내가 그 길을 개척해 가야합니다.



# 재미로 알아보는 2017 신조어 테스트



기획: 16오민석

**본 테스트는 재미를 위한 것으로,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핑프

멍청비용

팩폭

사이다

땃림픽

스밍

사바사

배박캔트

고답이

땃땃이

커업

쿠크

**정답은 뒷쪽에 있습니다.**





# 재미로 알아보는 2017 신조어 테스트



## 정답

**핑프**

[핑거 프린세스(finger princess)]의 줄임말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올 정보임에도  
주변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게으른 사람

사람 by 사람-사람마다 다르다는 뜻  
[케바케]-Case by Case와 비슷한 방식으로 탄생한 신조어

**멍청비용**

말 그대로 멍청하지 않았으면 안 나갔을 돈이라는 뜻

[빼도 박도] + [Can't (못한다)]의 합성어이자 줄임말

**팩폭**

[팩트 폭행]이는 뜻으로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고구마를 많이 먹은 것처럼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

**사이다**

마치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한 상황이라는 뜻

[멍멍] 글자와 [댕댕] 글자모양이 비슷해서  
멍멍이 대신 댕댕이라고 부르는 것

**댓림픽**

[댓글]과 [올림픽]의 합성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마치 올림픽처럼 빠르게 작성하는 것

[귀엽(귀엽다)]라는 뜻  
[댕댕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탄생한 신조어

**스밍**

[스트리밍]의 줄임말  
가요차트 점수반영을 위해 인위적으로 음악을 반복 재생하는 것

과자 쿠키다스처럼 부서지기 쉬운 것에서 유래된 말로  
멘탈이나 심장 등이 쿠키다스 처럼 깨졌다는 뜻

**사바사**

**배박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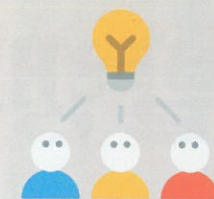
**고답이**

**댕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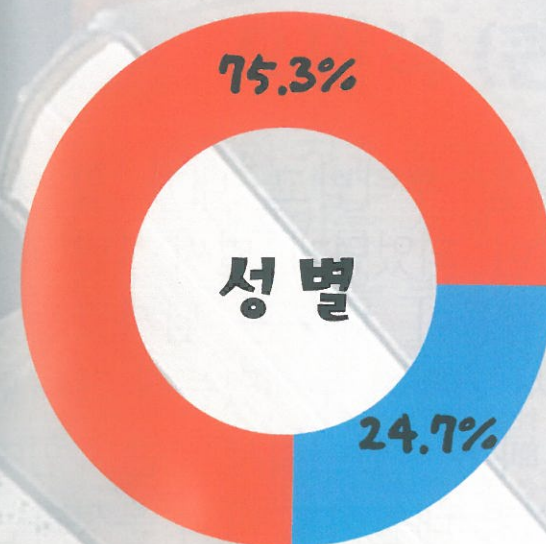
**커엽**

**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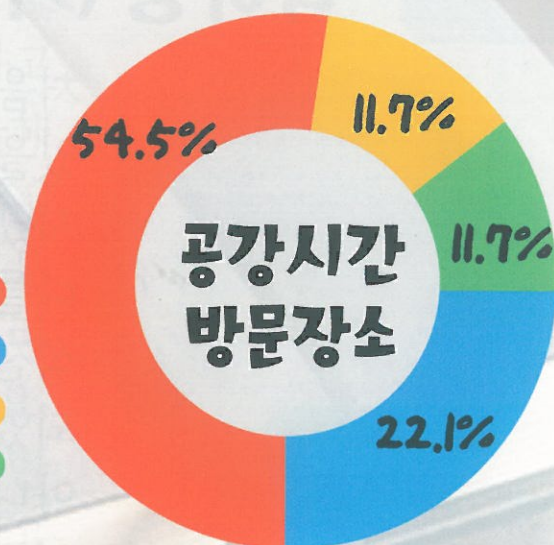
## 문정인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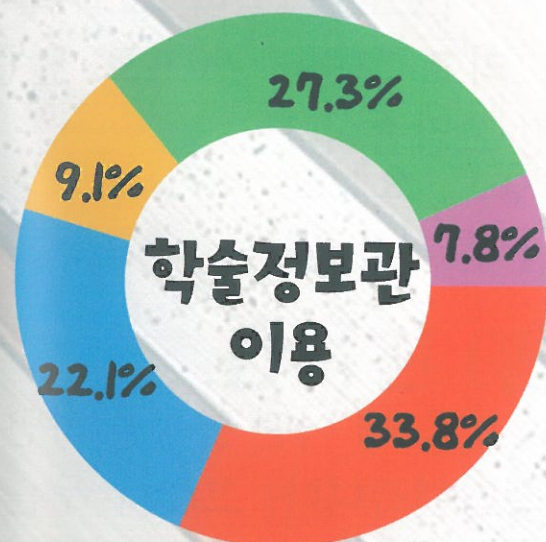
조사: 16윤소혜, 16이은지  
편집: 16오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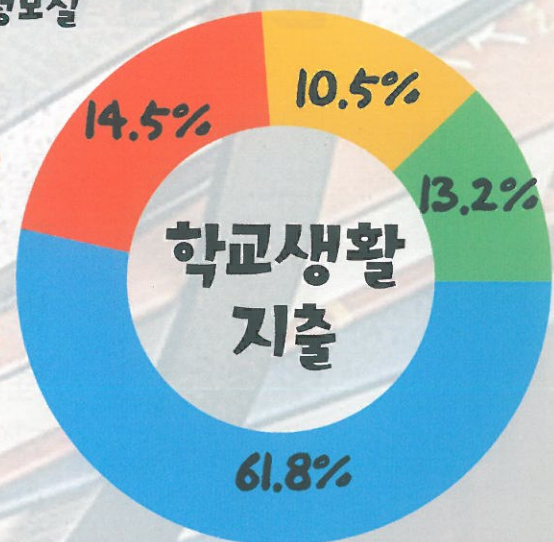
● 여자  
●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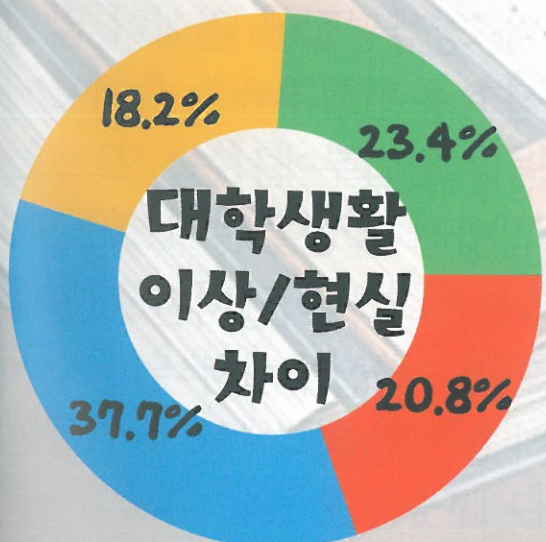
● 동방 및 과실  
● 도서관  
● 카페  
● 기타



● 자료실  
● 열람실  
● 그룹스터디실  
● 연속간행물실  
● 멀티미디어정보실



● 교통비  
● 식비  
● 유흥비  
● 쇼핑



● 공부  
● 연애  
● 다이어트  
● 대인관계

설문 인원 : 77명



# 발행후기

## 박하영 (기사)

처음 편집부 차장을 부탁받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던게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편집부원들이 대부분 남자였는데 다들 군대로 떠나서 걱정이 두배였는데 그래도 석진이랑 민석오빠가 있어줘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영이랑 대원이도 아직 문정과와는 아니지만 편집부 들어오고 그림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림비 90프로 만든 민석오빠 우주 최강 고맙습니다!

## 윤대원 (기사)

입학하고 친구들이 없을 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할까 찾아보다가 편집부라는 곳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영상편집에 관심이 많던 저는 흥미가 생겨 편집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편집부에서는 모르는 선배와 친구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친구들도 잘 대해주고 선배들도 잘 챙겨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보니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1년 동안 편집부에서 활동해서 좋았고 내후년동안은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한 학기동안 편집부 형, 누나들 감사했습니다.

## 오민석 (편집)

드디어 마무리 짓고 싶었던 그림비가 끝나고 이렇게 발행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그림비 제작을 부탁받은 기간은 고작 2개월 정도 였는데 그 사이 우리과 로고도 제작하고 표지부터 기사별 편집을 하느라 밤도 많이 새고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뭔가 디테일하게 수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내고 싶었던 그림비인데 이제 정말 끝이라는 느낌에 뭔가 시원하면서도 섭섭한 느낌이 드네요. 그동안 도와줬던 경은이, 은지, 소혜, 현주, 연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그동안 기사쓴다고 고생한 하영아 고맙다!

## 강석진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부의 그림비 기사 편집을 맡은 강석진 입니다. 어느덧, 제가 참가한 두번째 그림비가 발간되었습니다.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동료들 격려하고 힘을 내서 편집부를 잘 이끌어주신 부장님을 비롯하여, 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그림비는 표지가 엄청 잘 나왔습니다. 내용도 알차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림비 제작에 힘내주신 부원분들, 그림비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림비를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교수님들과 학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발행정보

편집차장: 16 박하영

편집부원: 16 강석진

16 오민석

17 윤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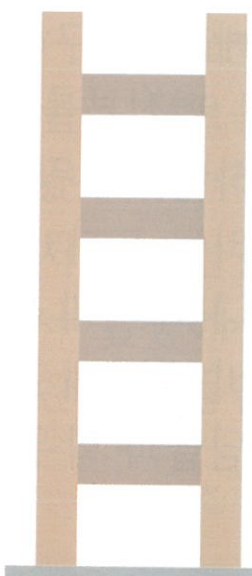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발행처: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길이 남을 편집부'



발행인: 16 박하영, 16 오민석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학과  
제34대 학생회 「도란도란」  
길이 남을 편집부**